

주간 위클리 | 나는 지금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을 보고 있다

이번 주 국제 정세를 보면서, 나는 단순히 “중동 긴장이 커졌다”는 식의 뉴스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는 오히려 지금 세계가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.

이번 주 나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결렬 이슈를 중심으로 상황을 다시 들여다봤다.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.

나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,
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이라고 본다.

이번 주를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

이번 주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.

“미국과 이란은 서로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며, 현실 인식의 간극 때문에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에 들어갔다.”

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.
오히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,

👉 **양쪽 모두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.**

내가 보는 이번 협상의 본질

이번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외교 실패처럼 보인다.
하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.

나는 이 상황의 핵심이 **‘착각’**에 있다고 본다.

미국은 군사적 압박과 핵시설 타격을 통해
이란이 사실상 항복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.

반면 이란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.

- 호르무즈 해협 통제
- 유가 급등 유도
- 글로벌 시장 흔들기

이걸 통해 자신들도 충분히 미국을 압박했다고 생각한다.

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다.

“이건 협상이 아니라, 서로 다른 현실을 믿고 있는 두 국가의 충돌이다.”

내가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포인트

나는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다.

미국은 이미 협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.

이란이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다.

그런데 그 타이밍에서 미국은
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선택했다.

나는 이 판단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냐면,

👉 이란 내부 강경파를 키워줬다

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다.

협상 상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
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조건을 더 세게 들고 나오게 만든 것이다.

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
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다.

내가 중요하게 보는 두 번째 포인트

이란의 전략도 매우 흥미롭다.

많은 사람들이 “호르무즈 해협 봉쇄”라고 표현하지만
나는 이걸 봉쇄라고 보지 않는다.

👉 나는 이걸 “통제”라고 본다.

이란은

- 우호국 → 통과 허용
- 적대국 → 제한

이렇게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.

이건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

정치 + 경제 + 전략이 결합된 플레이다.

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.

“이란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,
세계 경제를 이용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.”

내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

나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
군사 충돌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

내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건 이거다.

👉 **서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**

미국도, 이란도

각자 “우리가 이겼다”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.

이 상태에서는 협상이 성립되기 어렵다.

나는 이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다.

앞으로 국제정치는

“이기는 게임”이 아니라

“착각이 충돌하는 게임”이 될 가능성이 크다.

내가 보는 더 큰 흐름

나는 이번 사태를 중동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.

내가 더 크게 보는 흐름은 이거다.

👉 **에너지가 다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**

- 호르무즈 해협
- 원유 수송
- LNG 흐름
- 글로벌 물가

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.

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.

“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,
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직도 에너지다.”

내가 느끼는 지금 시대의 특징

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
시장은 일방적으로 무너졌다.

하지만 지금은 다르다.

- 갈등은 커지고
- 불안은 커지는데
- 자본과 기술은 계속 움직인다

나는 이걸 보면서
지금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한다.

“불안정 속에서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간다.”

그리고 이게 더 무섭다.

내가 보는 가장 큰 위험

나는 지금 상황에서
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본다.

👉 불안정이 일상이 되는 것

- 휴전이 나와도 아무도 안심하지 않는다
- 협상이 시작돼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
- 시장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

나는 이 상태가 앞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.

그리고 그렇게 되면

- 기업
- 정부
- 투자자

모두가

“완전히 안정된 세계”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.

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보는 의미

나는 이번 사건을 단순 뉴스로 보지 않는다.

이건 투자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호다.

나는 이렇게 본다.

첫째, 에너지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다.

둘째, 공급망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.

셋째, 특정 산업은 타격을 받고, 특정 산업은 기회를 잡는다.

특히 나는

- 원유
- 에너지
- 대체에너지

- 방산
- 물류

이 영역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.

내가 이번 주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

나는 이번 주 상황을 단순히
“협상이 실패했다”라고 보지 않는다.

나는 이렇게 본다.

**지정학은 이제 배경이 아니라,
세계 경제를 직접 움직이는 본체가 되었다.**

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다.

👉 세계는 지금

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”이 아니라
“문제를 관리하는 방향”으로 움직이고 있다

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

나는 이번 주 내내 하나의 질문을 계속 생각했다.

“세계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,
아니면 갈등을 계속 안고 갈까?”

지금까지 흐름을 보면
나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본다.

결론 | 나의 관점

나는 지금의 세계를
단순한 혼란이라고 보지 않는다.

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.

나는 지금
불안정이 새로운 기본값이 되는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다.

그리고 이 변화는
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.